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열왕기하 24:10-14
2025년 11월 16일 오전 11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 주여 도우소서 >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기록된 말씀인 율법책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였지만,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는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왕하 20:16-18).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 가능성에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100년 전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하류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하였습니다. 앗수르의 지배와 영향력에서 독립을 꾀하던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유다까지 대규모 원정군대를 보내서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년 전인 1920년대, 조선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일 운동도 하고 무력 투쟁도 하던 시기에, 누군가가 앞으로 조선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 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영국, 5위는 독일, 그 다음 6위가 한국입니다.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입니다. 즉,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 위가 된 것입니다. 물론 평가 방식이 17,00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주관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인들이 한국을 일본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의 성취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 선포한 말씀은 조선이 일본을 제친다는 것 만큼이나 황당무계한 내용이었습니다. 헌데 요시야 왕 28년에 바벨론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였습니다. 앗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으로 도망쳤지만, 바벨론 군대는 하란까지 추격을 하여 하란 성도 함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말씀은 실현 가능성에 전혀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 앞으로 언젠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모든 보물과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요시야가 죽고 난 후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왕하 22:20).

요시야 왕은 유다의 멸망을 막으려고 기록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왕하 23:26). 그렇다면 유다의 멸망을 최대한 늦추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려면 요시야가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적을 바벨론으로 설정하고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헌데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그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끄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왕하 23:29).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왕하 24:10-14)

당시 중근동에는 두 개의 자연적인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나이 반도 동쪽의 애굽 강으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브라데 강으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실 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 15:18).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 때 성취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왕상 4:21). 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인 애굽 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현데 앗수르가 처음으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가나안과 애굽까지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10년 만에 앗수르의 지배를 끝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조인 제 26 왕조를 연 사람의 아들이 바로 느고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니느웨를 점령한 신홍 제국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오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는 유브라데 강으로 군대를 출병시킨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오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앗수르 앞에 전치사 **לֹא**(알)이 사용되었는데, 전치사 ‘알’은 ‘대항한다’는 뜻도 있지만 ‘위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모두 앗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앗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뜨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새번역, 왕하 23:29). 실제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앗수르의 마지막 왕을 도와 하란 성을 탈환하려고 바벨론과 싸웠습니다. 여하튼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막기 위해 유브라데 강변 도시인 갈그미스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의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2. 말씀보다 환경에 대응한 요시야

당시 요시야 왕은 바벨론보다 애굽을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보다 눈 앞에 보이는 환경에 대응한 것입니다. 이 때,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대하 35:21).

현데 요시야는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므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대하 35:22). 역대기 사가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기록된 말씀에는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에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시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신 선포된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권면하실 때,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요시야가 전사할 때 나이는 고작 39 세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훌륭한 왕의 죽음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요시야 왕의 서거를 슬퍼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에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대하 35:25).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이른 나이에 죽음으로 유다의 멸망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요시야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왕위 계승이 꼬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왕하 23:30).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은 살룸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렘 22:11).

문제는 살룸이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대상 3:15). 살룸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헌데 백성들이 살룸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허나 살룸 왕은 3 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삼 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왕하 23:31). 애굽의 바로 느고가 살룸, 여호아하스를 잡아 간 것입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별금으로 내게 하고”(왕하 23:33).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하맛 땅 리블라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맛 땅 리블라는 유브라데 강에 가까운 곳으로 바로 느고는 이곳을 북방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허나 바로 느고는 하란 성 탈환 작전에 실패하고 애굽으로 회군하였습니다. 회군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러 전쟁 배상금을 받기 위해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왕하 23:34). 그래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3.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야김 왕은 1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왕하 23:36). 꼭두각시 놀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형을 괴뢰라고 하는데, 여호야김은 애굽의 괴뢰 정권이 되어 백성들을 수탈하여 바로 느고에게 은과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왕하 23:35). 현데 여호야김 제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단 1:1).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 때,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 갔습니다.

그 후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왕하 24:1). 현데 3년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은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그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2절).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까지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때, 애굽은 전혀 여호야김을 돋지 못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왕하 24:10-14)

잡아가고”(대하 36:6). 또한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왕하 24:13). 나아가 예루살렘 주민 일 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14 절).

이리하여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가 이사야의 입과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